

디지털로 구현한 꿈의 세계

디지털만화 《M.BUG》 개발한 조혜정씨

만화는 인간 상상력의 극한으로 무한질주하는 꿈의 세계다. 만화가 컴퓨터·멀티미디어와 만나 날개까지 달았다. 디지털만화사(<http://digman.withyou.net>) 공동대표인 조혜정씨(27)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디지털만화 《M.BUG》가 바로 그것이다. 출판만화와 영상만화를 결합시켜 제3의 만화매체를 만든 것이다.

“출판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이미 일본에서 고도화됐습니다. 일본에서 시도해보지 못한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미디어 믹스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대안매체로서 디지털만화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현재 만화시장은 인쇄매체인 출판만화와 영상매체인 애니메이션이 양분하고 있다. 디지털만화는 두 매체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섰다. CD롬에 칼라 데이터를 디지털 파일로 저장, 배경음악·효과음·내레이션과 함



여생 즐기며 책의 자비 베푸는 선인(仙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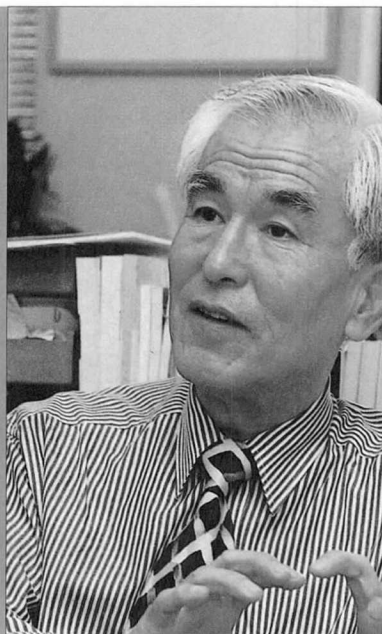
한국청소년도서재단 이성원 이사장

“책은 좋은 스승입니다. 세상을 어려워하며 사는 사람일수록 책을 받들어야 합니다. 좋은 책에서 배운대로 살면 사회가 보답해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청소년도서재단 이성원 이사장(66)은 요즘 베푸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젊어 번 돈을 모두 모아 재단을 만든 그는 주로 중학교와 군부대 등에 책을 보내는 일을 하며 남은 여생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책의 자비를 베풀도록 이끈 스승은 다름 아닌 책.

“대학 1학년 때, 동경대 교수가 쓴 《젊은 지성인에게》라는 책을 통해 인생에는 가치와 이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서울대 기계과를 나온 그는 외국회사와 현대건설 등을 다니기도 하고 제조업과 건설업에 손을 대기도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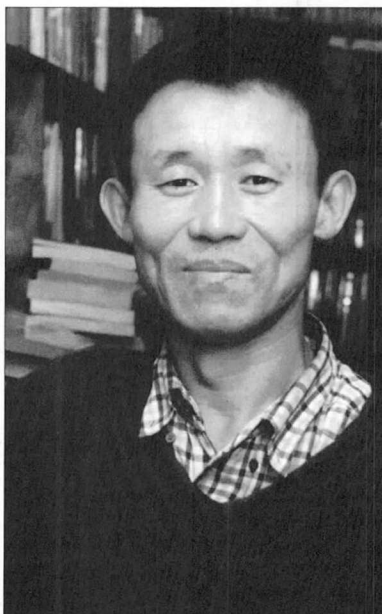
사이버 공간에서 풍겨나는 헌책의 향기

인터넷 헌책방 운영하는 이범순씨

푹푹한 냄새가 풍기는 책의 미로, 애당초 분류가 불가능한 데다 책 뒤지는 재미가 쓸쓸해 헌책방하면 으레 드는 이미지다. 하지만 이 헌책방이 최첨단기술인 인터넷과 만났다. 구할 수 있는 모든 책을 싸게 판다는 헌책방의 장점과 자신이 원하는 책을 고를 수 있다는 컴퓨터의 장점이 서로 결합된 것. 이범순씨(44)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고구마’(www.goguma.co.kr)에서 이 사이버헌책방을 만날 수 있다.

“최근 흐름이 전자상거래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 주목했습니다. 이제 헌책방도 동네장사에서 벗어나 가능하면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느꼈죠. 많은 분들에게 싸게 팔 수 있는 헌책방 특유의 시스템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이범순씨는 성동구 금호동에서 20년째 헌책방 ‘고구마’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인터넷사이트 작업은 또 달랐다. 지난해 7월 처음 사이트를 개설하고 입력작업을 시작했지만, 올 8월에야 검색기능을 갖출 수 있었을



“디지털 만화 <M.BUG>는 출판만화와 영상만화의 장점을 절충해 만든 새로운 대안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따지기 전에 실험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 동영상까지 구현하고 있다. 출판만화의 정감과 영상만화의 박진감을 고루 살렸다.

첫작품인 <M.BUG>는 백전전사들과 현실세계에서 온 소년이 네트스퀘어(가상공간)를 소멸시키려는 밀레니엄버그의 음모에 대해 인류의 미래를 지킨다는 내용이다. 올해 2월 서울에니메이션센터에 입주해 6개월만에 이뤄낸 결실이었다. 지난 8월에 열렸던 국제만화페스티벌(SICAF)에 첫선을 보여 호응이 좋았는데, 사운드와 인터페이스 등을 좀더 보강해 다음달쯤 완결판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무엇보다 만화는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미있어야 감동도 있고 교훈도 줄 수 있겠지요. 만화의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형식이라는 점이지요. 앞으로 21세기 만화산업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할 것입니다.”

지난해 공주문화대 만화예술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올해 2월 스승인 경병표 교수와 함께 디지털만화사를 설립했다. 현재 동문 4명과 함께 코믹 호러물인 <BUG DRAGON>을 제작중이며 장기적으로 일본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 박천홍 기자

“비굴하지 않은 마음으로 사회를 위해 일하면 사회가 그를 먹고살게 합니다. 그러니 마음놓고 마지막 한 푼까지 모두 사회를 위해 쓸 생각입니다.”

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수줍은 성격 탓에 곤혹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때 그를 일깨운 또다른 책은 내셔널을 창업한 마쓰시타의 <사업 성공의 길>이다.

“마쓰시타의 책을 통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원리를 지키며 살면 사회가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실천하니 정말 사회가 도와주더군요.”

매사에 투명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사업은 번창했다. 그러나 나이 40이 된 그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다. 성인은 40세를 '불혹'이라고 했지만 범인은 가장 빈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50세가 되면 모든 것을 정리해 더불어 살기로 작정한 그는 55세가 되어 외부의 경제적 도움없이 재단을 설립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중학교와 군부대 등에 보낸 책은 무려 10만여 권. 책에서 얻은 삶의 지혜를 책을 빌어 나눠주고 있는 것이다.

“비굴하지 않은 마음으로 사회를 위해 일하면 사회가 그를 먹고살게 합니다. 그러니 마음놓고 마지막 한 푼까지 모두 사회를 위해 쓸 생각입니다.”

생의 순간이 다하는 날까지 모든 기금을 사용해 책의 자비를 베풀며 삶을 즐기려는 그에게서 선인(仙人)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오원진 기자

“시골에 계신 60대 할머니도 아무런 부담 없이 읽고 싶은 책을 검색하고 주문할 수 있는 인터넷헌책방을 만들고 싶습니다. 책이란 바로 그런 문화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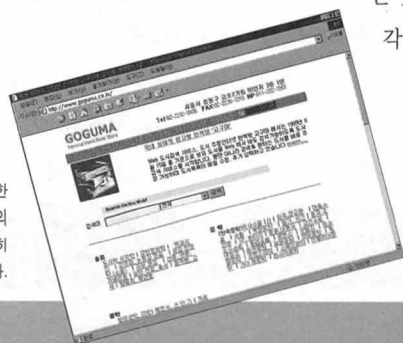
정도로 개인이 하기에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분류에서 검색까지 모든 게 선례가 없는 일이라 혼자 연구하고 고민하는 수밖에 없었다.

현재 검색 가능한 헌책 수는 모두 2만여권. 주문 건수는 하루에 10여건 정도로 인터넷상에서 주문을 입력하면 입금 확인 후 우편으로 책을 발송한다. 어려움이 있다면, 재고확보가 어려운 헌책방의 특성상 팔리는 대로 리스트에서 빼고 들어오는 만큼 다시 입력하는 과정이 지루하게 되풀이된다는 점.

“예전에 비해 헌책방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판매를 하면서 아직 시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영문사이트를 개설해 해외에까지 헌책을 공급할 생각입니다.”

검색기능에 덧붙여 이제부터는 장바구니 기능을 첨가해 좀더 주문을 편리하게 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금씩 발전해나가는 '고구마'의 모습은 우리 헌책방의 새로운 활로를 보여준다.

- 김연수 기자



'고구마'만의 독특한 분류법은 헌책방의 서가배치를 닮아 천천히 책제목을 들여다볼 수 있다.